“관음정진 100만독으로 생활불교 구현을”

부산 삼광사, 100만독 입재법회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100여 일 관음정진 기도 수행해
수행 동참자 회향일 이수증 수여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이 ‘관음정진 백만독 봉행기’에 삼광사 번을 달아주는 모습.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가 대충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며 진행하는 관음정진 백만독 정진을 시작했다.

삼광사는 7월 1일 경내 지관전에서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심청정 관음정진 100만독’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천태종은 현재 2대 종정을 역임하고 종단 중흥에 앞장 선 대충 대종사의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며 관음정진을 이끌고 있다. 삼광사는 천태종의 관음정진 불사에 동참하며 불자들의 신심 고취와 국운융창을 기원했다. 관음정진 100만독 결사 회향은 11월 1일이다.

법회에는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 주지 영제 스님을 비롯해 종단 주요 소임자스님들과 이경훈 삼광사 신도회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현철 부산진구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입재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독경 △상월원각대조사 법어 봉독 △국운융창기원 △개회사 △봉행사 △입정 △법문 △백만독 봉행 번 수여 △축사 △축가 △관음정진 △발원문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법문을 통해 “관음정진 백만독이 생활불교로 이끌어 주는 방법이 될 것이며 욕망을 여의는 해방과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지침이 되어 줄 것”이라며 “수행정진을 통해 바르고 밝은 마음으로 가정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회향의 불자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덕수 스님은 법문 이후 ‘관음정진 백만독 봉행기’에 삼광사 번을 달아주고 “수행정진 합시다”고 외친 후 주지 영제 스님에게 봉행기를 전달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한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연화세계’라는 대조사의 말씀과 대충 대종사의 가르침을 내가 믿고, 내가 닦아 내가 될 때 한마음이 청정해지고, 관세음보살의 묘지력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의 연꽃을 피우게 될 것”이라며 “백만독 불사를 통해 대충대종사의 무량한 자비심에 감사하며, 주어진 시간동안 열심히 정진해 자아완성은 물론, 세계인류 평화 발원, 국운융창 기원, 불국토를 건설하는데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충 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일심청정 관음정진 100만독’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와 전국 천태종 사찰에서 릴레이로 봉행해온 정진이다. 대충 대종사의 탄신일 100주년이 2년 뒤인 2026년 1월 23일이며 이에 앞서 불자들의 신심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

대충 대종사는 구인사에서 천태종을 중창한 천태종 2대 종정이며 상월원각대조사를 은사로 1945년에 출가했다. 제2대 종정으로 천태종 중흥과 한국불교 발전에 앞장섰으며 1993년 음력 9월 구인사에서 원적에 들었다.

관음정진 100만독 동참 불자들은 매일 관음정진 수행 기도하며 100여 일 동안 수행을 이어간다. 100만 독을 완독한 불자들에게는 이수증을 수여받는다.

경봉문도회, 경봉 선사 42주기 추모다례재

7월 2일 통도사 극락암서
경봉장학회 2700만원 전달


경봉문도회는 7월 2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당 정석 대선사 열반 제42주기 추모다례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를 봉행했다.

경봉문도회(회장 원산 스님)는 7월 2일 통도사 극락암 무량수각에서 ‘경봉당 정석 대선사 열반 제42주기 추모다례 및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를 봉행했다.

경봉문도회는 매년 경봉 선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인재 불사 유지를 잇기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해 장학금은 박사과정 동국대 3명, 중앙승가대 2명, 신경주대 1명과 석사과정 동국대 4명, 중앙승가대 2명, 학사과정 동국대 3명 등 총 15명의 학인스님에게 각 100만 원씩 전달했다. 이어 통도사 승가대학 400만 원과 내외전 학인스님들에게 총 1900만 원을 전달해 수행 정진을 할 것을 당부했다. 또 통도사 보광선원, 극락암 호국선원, 서운암 무위선원에 수행지원금과 영축율학승가대학원 연구비 800만원을 지원해 포함해 총 27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추모다례재에서는 경봉문도회에서 발간한 책 ‘신금강내원사시선’과 ‘경봉 스님의 생활 도담 – 사바를 무대 삼아 멋지게 살아라’를 불전에 올리고 기념했다. ‘신금강내원사시선’은 ‘소금강’으로 불린 양산 천성산의 절경과 당대 선사와 유학자가 읊은 한시를 우리말로 번역 출간한 책이다. ‘경봉 스님의 생활 도담 – 사바를 무대 삼아 멋지게 살아라’는 경봉 스님이 쉽게 풀이한 법문집이다.

추모재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 경봉문도회 문장 원명 대종사, 회장 원산 대종사,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수좌 명신 스님, 주지 현덕 스님, 구룡사 회주 정우 스님 등 문도스님과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번 추모다례재는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스님과 전 통도사 노전 지학 스님이 집전했으며 △상단불공 △대중삼배 △추모입정 △종사영반 △헌다 및 헌향 △경봉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인사말씀 △공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경봉문도회장 원산 스님은 “궂은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문도들은 큰스님의 유지를 이어 실천하고 상구보리하고 하화중생도록 노력을 다해 수행 할 것”이라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대불련 부산지부 템플스테이 성료

6월 29일~30일 고운사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회장 김은정)가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6교구본사 고운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사진〉

부산 대불련은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체험하고, 서로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마련했다.

부산 대불련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와 세간해연구소에서 제공했으며, ‘만남의 장’, ‘스님의 꽃디지트’, ‘화엄놀이카드(스님과의 차담)’, ‘명상 와선’, ‘새벽예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안도 스님은 “대학생들이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명상을 체험하고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을 얻기를 바란다. 마음의 힘이 곧 행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를 위해 봉사해 주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김은정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고, 참가자 모두를 대신해 스님들과 관계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대학생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체험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다. 동문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앞으로의 활동에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천태종 광명사 우란분절 입재

6월 30일, 경내 지관전

대한불교 천태종 부산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가 6월 30일 지관전에서 우란분절(백중) 입재를 봉행했다.〈사진〉

입재법회는 부산 삼광사 주지 영제 스님과 덕준 스님, 현오 스님이 법사로 동참했으며 신중작법, 일백사위, 시련, 대령, 관욕, 사성례, 천수경 독송, 천수바라, 도량계, 지장청, 화청, 축원, 상단법문과 관음시식 순으로 진행됐다.

광명사 우란분절 천도 입재에는 약 45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염불하고 위패가 모셔진 영가단에 절을 올렸고, 영가천도, 업장소멸, 소원성취를 간절히 염원했다. 광명사 우란분절 초재는 7월 14일, 중재는 8월 4일, 회향은 8월 18일이다.

주지 춘광 스님은 입재 상단법문을 통해 “영가님들 다겁생에 지은 모든 업장 번뇌 다 내려놓으시고 무량한 공덕으로 극락왕생하길 바란다”며 “본래의 나는 생사가 없는 청정법신임을 기억하고,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여 탐진치로 지은 업장번뇌를 빨리 내려놓고 소멸시키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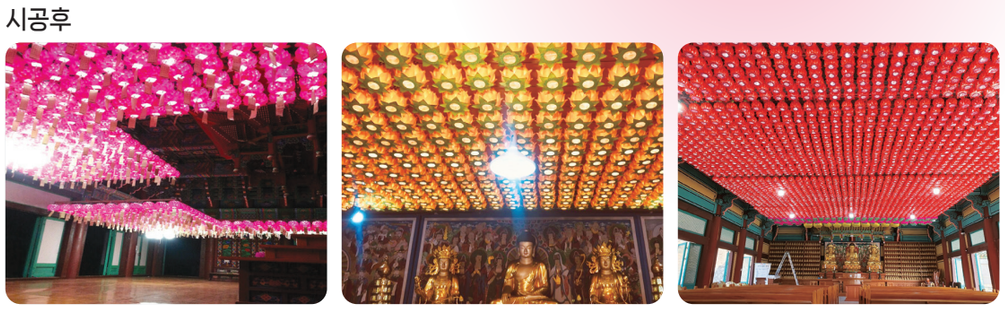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4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설치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시공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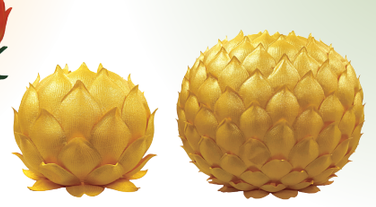
시공후


“자동 승 하강 장치란 기존 또는 신축법당에 설치하여 연등을 편리하게 위 아래로 조정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자비연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칼라연등

황금등

광명연등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점문의 및 안내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